

# “왕오천축국전 폭넓게 연구”

## 정수일 박사, 불문研 강연회서 주장 “90년간 국내 연구서 1권 논문 8편뿐”



신라, 나아가 아시아 불교 문화의 원형과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초 스님과 왕오천축국전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동국대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목정배) 주최 특별강연회에서 정수일(사전·前 단국대 사학과 교수) 박사는 ‘고대 실크로드 불교문화의 교류에 대한 접근-해초를 통해 본 서역불교’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정 박사는 우선 해초 스님이 인도 불교의 일시적 부흥기인 8세기 전반기에 인도를 순례하고, 다시 불교 전파 루트를 따라 중국에 도착해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는 데 주목했다. 불교의 전파는 그 과정에서 고리본 아니라 의식, 학문, 건축, 공예 등과 같은 불교의 문화 역시 전하기 마련인데, 《왕오천축국전》에는 △불교 전파 루트 △불교의 대중화 추세 등이 낱말이 기록되어 있다. 《왕오천축국전》은 19세기 말까지도 대장경에 수록된 《일체경음의》에 서명과 일부 내용만이 소개된 정도여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1908년 중국 돈황의 천불동에서 두루마리 사본(寫本) 형태의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되면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정 박사에 따르면 이 책은 8세기를 전후해 인도와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가능케 하지만, 지금까지 스님의 생애며 《왕오천축국전》에 대한



◇《왕오천축국전》 돈황본 사본.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먼저 《왕오천축국전》의 내용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1908년부터 1999년까지 국내에서 펴낸 《왕오천축국전》의 원문 교감과 주석 관련 연구서는 1권, 일본이나 중국에서 6~7권이 나온 것과 비교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풍토에서 같은 기간 8편의 논문만이 쓰여진 것은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정 박사에 따르면 해초 스님의 이러한 활동은 신라불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 동안 국내 학계에서는 불국

사에 비로자나불과 아미타불이 나란히 봉안되고, 석불사의 감실에 10구의 보살상이 《불정존승대라니열승의계법》에 근거한 팔대보살이라는 점에서, 신라 불교 속에 적잖게 밀고의 색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왔다. 정수일 박사는 결론에서 “해초 스님의 사상이 한국 불교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는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연구의 폭을 신라의 밀교 연구로 확대해, 해초 스님이 정통 밀교를 계승한 사상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opia.com)

### 학술단신

#### 선학회 16일 발표회

한국선학회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는 원철(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스님의 ‘선림승보전’에 대하여, 조준호(동국대 강사) 박사의 ‘근본불교의 지관에 대해’ 등 2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논평에는 임성택(동국대 강사), 황미향(동국대 강사) 박사 등이 나선다. (02)2260-3135

#### 한국사연구 지원 확정

국사편찬위원회는 2001년도 한국사연구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접수된 대상자 가운데 공동연구 5건(20명)과 단독 연구 26건(26명)을 연구지원 대상자로 결정했다. 불교 관련 연구지원 대상자는 ‘백제의 불교사상 연구’(조정철), ‘조선 후기 불교계의 동향에 관한 연구’(김수석), ‘20세기 전반기 종교계의 민족주의와 세계주의의 수용과 조율에 대한 연구’(윤선자) 등 3명이 선정됐다.

### 사찰 편액을 찾아서

#### 31 남전의 해인사·선석사 편액



◇합천 해인사 '구광루' 편액.



◇성주 선석사 '정법료' 편액.

#### 해인사 '구광루'

#### 6개 쪽판 이어 음양각

#### 선석사 '정법료'

#### 소박하고 단아한 서체

남전 한규(南泉 光彦·1868~1936)는 합천 출생으로 1885년 18세 되던 해에 해인사를 참례하고 문득 발심하여, 신해(溍海)를 은사로 득도하고, 완허(玩虛)의 법을 이었다. 이후 그는 청암사 혼원(混元), 동화사 회옹(晦應) 등으로부터 교학을 배웠고, 밤어사, 오대산 상인사, 해인사, 통도사 등에서 선리(禪理)를 참구하였으며, 1908년 해인사 재산(齋山)으로부터 구족계와 보살계를 받았다. 또한 남전은 동래 포교소 포교사, 법어사 중앙포교당 포교사, 해인사 총섭, 지자사 조실 등을 지내며 포교와 수행에 진력하였고, 1922년에는 도봉(道峰), 석두(石頭), 성월(性月) 등과 함께 선학원을 설립, 선종 진좌에 노력하였다. 남전은 어려서 12년 동안 인동(仁東) 서승재(徐松齋)의 문하에서 한학을 배웠고, 시문과 글씨 모두에 뛰어났다고 한다. 남전의 글씨는 특별히 서법에 안주하지 않은 선필이면서도 승려의 글씨라 기보다는 의연한 선비의 글씨를 떠올리게 한다. 합천 해인사(구 광루), 성주 선석사(정법료) 편액 등이 그의 대표적인 필적이며, 이외에 해인사 법보전 중앙 통로 좌우에 걸린 주연도 그의 글씨이다. 합천 해인사 <구광루> 편액은 세로 6개의 쪽판을 이어 붙이고 그 위에 글씨를 음양각으로 새긴,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하는 것이다.

이 편액은 도서나 관지는 없으나 남전의 강건(剛健)한 필선의 계행(楷行)으로, 1908년 해인사 총섭이 되어 절을 정비하면서 써서 건 것이 아닌가 싶다. 편액의 글씨는 조심스럽게 쓴 여타의 대자필(大字筆)과 달리, 일필로 휘쇄(揮灑)한 듯 경쾌하며, 호방하다. 성주 선석사 요사에 걸려 있는 <정법료> 편액은 번죽 없이 역관(力貫)의 사방을 통괄해 귀를 죽인 민관 형식을 취하고 있다. 편액의 형태나 그 단청은 편액이 걸릴 건물들의 격에 맞추어 하는 것이 상례로, 이 편액은 한적한 승방을 연상케 하는 소박한 것이다. 글씨를 쓴 인연은 알 수 없으나, 역관 좌측에 조그맣게 “남전(南泉)”이라는 관자가 있으며, 청경(淸勁)한 선필과 단아한 서미를 지닌 글씨이다. 안병인(대한불교진흥원)



비른 박사 변화 예견

“디지털 대장경 불교학 연구·교육 무제한적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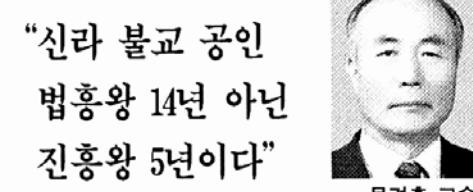
디지털 대장경은 불교학 연구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이에 대해 불교학자로서 10여 년 간 경전 전산화에 몸담아온 외국인 학자가 “디지털 대장경은 불교학 연구와 교육 등에 무제한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담해 주목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가 7일부터 9일까지 동국대 예술극장에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불교학 방법론의 변화 전망’을 발표한 크리스찬 비른(중화대장경연구소·대만) 박사에 따르면, 디지털 대장경은 ‘발견’, ‘주석 달기’, ‘비교’, ‘평가’, ‘표본 추출’, ‘예시’, ‘번역’ 등 연구 절차의 진행 속도와 정확도를 한 차원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판본을 비교하며 그 속의 인용문을 찾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더듬고 다른 경전을 다시 읽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디지털 문서 작성의 국제적인 약속인 마크업(Mark-Up) 기능으로 다져진 디지털 대장경은 기존의 텍스트(경전 내용)를 체계화해, 연구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비른 박사는 “여러 학자들이 한 주제를 동시에 연구·비교할 수 있는 ‘다중 연구 체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학자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토론하고 서로의 연구 성과를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른 박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경전에 대한 다양한 주석서와 번역서들의 출력이 늘어나고, 그 결과 원전에 밝지 않은 서구의 철학자들도 불교 철학의 논의에 공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종욱 기자



◇전북 원주군 구미면에 소재한 경복사지.

#### 완주 경복사지 ‘지방 기념물’

열반종의 본산으로서 삼국시대의 대표적 사찰인 전북 원주군 경복사지가 ‘지방 기념물 제108호’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전북대 박물관이 지난 7월 말 발간한 《경복사지 지표조사 보고서》에서 ‘경복사지는 문헌자료나 현존 유구로 보아 삼국시대에 창건돼 조선후기까지 법맥을 이어온 매우 가치 있는 폐사지’라고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5월 25일부터 9월 21일까지 실시된 전북대 박물관의 경복사지 지표조사에서 17개 소의 건물지와 석등대좌의 유구 등이 확인됐다. 특히 ‘고덕산 경복사 안역40(高德山 靈福寺 萬曆四十)’이라는 명문이 쓰여진 기와 조각을 수습해, “650년(고구려 보장왕 9년)에 경복사를 창건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유물로 재차 확인했다. 한편 경복사지의 가치를 확인한 원주군은 지표 조사에 이은 발굴 조사의 의지를 표명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경복사 복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원주군은 이번 지표조사 결과를 전북도와 문화재청에 보고한 것은 물론 내년 전북도 및 문화재청 예산에 경복사 복원의 기초가 될 발굴 조사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오종욱 기자



문경현 교수 논문 발표

#### “신라 불교 공인 법흥왕 14년 아닌 진흥왕 5년이다”

신라에 불교가 공인된 때가 법흥왕 14년이 아니라 진흥왕 5년이란 주장이 제기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 불교 공인을 위해 순교한 이차돈은 개인의 이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승려를 통칭하는 말이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문경현(경북대) 교수는 <민족문화학술논총>에 “신라불교 초전 고”라는 논문을 게재하고, 이 같은 주장을 폈다. 문 교수는 “진흥왕 5년(544)에 흥륜사가 완성돼 3월에 사람들이 출가해 승려가 되어 부처를 받드는 것을 허가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에 주목했다. 신라 최초의 절인 흥륜사가 창건된 이 때가 정식으로 불교가 공인된 해라는 것이다. 또 법흥왕은 생전에 ‘모즉지(牟即智)’ 또는 ‘원종(原宗)’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법흥왕이라는 시호는 그가 죽은 뒤 “참 불교를 일으킨 왕”으로 자처했던 진흥왕(眞興王)이 전왕을 추존하기 위해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흥륜사의 주지가 된 사람 역시 진흥왕으로 그의 법명은 법운(法雲)이었다. 특히 이차돈은 위촉(魏倣)으로도 기록되고 있는데, ‘고승도처’를 뜻하는 신라의 옛말 ‘이’에서 온 것으로, 승서서 활동하던 불교 비종교 시대의 승려를 지칭하던 보통명사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근거로 이차돈의 가계에 대한 기록이 어떤 데는 박세로, 어떤 데는 김세로, 어떤 데는 석세로 등 주장하는 등 조각된 순교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종욱 기자

#### 문화유적 보존 국제포럼 열렸다

“문화재 보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의 더 많은 관심 그리고 ‘과학 기술’이 힘을 합칠 때에만 보다 많은 유물들이 햇빛 아래 숨쉬게 될 것이다.” 공주대학 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 주최로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충남 대전시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과학재단에서 열린 ‘새 천년 문화유적 보존 국제포럼’은 선대의 유산을 보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환경영양과 문화유적 보존 △

문화유적의 종화원인과 대책 △첨단 문화유적 진단 및 보존기술 △문화재 보존 사례 등 4개 분야에 걸쳐 26편의 논문이 발표된 이 포럼에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러시아, 일본, 중국 등 7개국의 문화재보존 전문가 13명과 문화재 보존 관련 국제기구인 ICCROM(국제문화재보존연구소)과 ICOMOS(국제기념물유적위원회)의 대표위원 1명씩이 참여했다. 한국측에서는 ‘한국의 문화재 보존 과학의 현황과 전망’(김은영·한국문화재보존과학), ‘석조문화재 보존 국제포럼’은 선대의 유산을 보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오종욱 기자

생명의 으뜸은 생 - 선식이다

## 물없이 씹어 먹을 수 있는 자연식 식사 - 생 선식이 스프

특허상표 출원번호 2000-40253 특허상호 출원번호 2000-21890

· 제품명 : 생-선식  
· 원산지 : 강원 화천  
· 영업허가 : 화천 제1-17호  
· 성분 및 배합 :  
곡류 80%, 꿀 20%, 쌀기말 1, 녹말 5, 감경개 2, 조 5, 울무 5, 찹쌀미 5, 쌀 1, 수수 5, 땅콩 1, 홍화씨 2, 콩 1, 순화가루 2, 호도 1, 보리 5, 파란콩 1, 울릉말 1, 찹쌀 5, 기장 5, 현미 2, 찹쌀수수 5, 잣 1, 호밀 5

비만 속속  
피부 재생  
체질 삭삭  
피로 회복  
기운 속속  
면역력 상승  
혈액순환 원활

걱정 끝

· 포장단위 : 한달분 450개(1.8kg)(1개-4g) · 유효기간 : 6개월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여 혹시 환에서 벌레가 생겨도 이상이 없으나 환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제조원 : 상기원/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림리 350-2  
· 보관방법 : 통풍이 잘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무료전화 : 080-737-0044 · 소비자상담실 : 02) 723-4463-4  
· 서울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빌딩

옛 비법의 전통 생-선식 자연

# 上氣元

※ 맞춘선식 - 몸(체질)에 맞는 선식을 만들어 드립니다.

E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혜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 특허청에 의장등록 (제0246178호)

## 승복·법복·누비·바탕팬메인네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선염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허청에 연꽃·유자·만자무늬를 의장등록함.
2. 원단에 무늬가 입체적으로 은은하게 들어 있어 아주 특수함.
3. 누비로 만든 저고리, 바지, 방한복에도 무늬가 들어 있으며, 특수하게 제작하여 소매끝에도 바람이 들지않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함.
4. 바탕에도 여러가지 무늬가 있어 아주 세련되고 권리하며 100%방수 처리함.
5. 개량한복처럼 세련되게 디자인 되었으며 원가를 많이 절감함.

스님계 가사 분사 보시하린 +홍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계 팔만승 소멸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부산, 경남 대리점 (051) 556-8848  
· 지역 대리점 모집 중  
· 지역 판매점 모집 중

저고리	남	130,000
바지, 조끼	남	180,000
누비(상,하)	남	180,000
누비방한복(상)	남	130,000
누비조끼	남	60,000
누비동방(두루마)	남	180,000
바탕	남	30,000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 설 유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74-1 (창신빌딩 1층)  
상담전화 (053) 764-4114 / 팩스 (053) 741-4119  
후대폰 011) 9850-4400

깨침 건강 자유

마음을 마음대로

## 삶을 온전히 누리기

www.now here truth.com  
016-206-1001

단 실주실 만세  
마음문제 완전 해결!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미 받은 깨달습니다)